

‘1위 LG’도 잡았다…김도영 합류한 KIA 연승 ‘주목’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2차전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타이거즈 주간전망

29~1일 NC·2~4일 한화와 맞대결

컨디션 관리 난조 NC전 승리 쟁겨야
국내 선발투수 승리 없어 분발 ‘관전’
김도현·황동하·양현종 잇따라 출격

KIA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LG트윈스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나성범이 부상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위즈덤이 몸살로 결장했지만, 김도영의 복귀에 힘입은 KIA가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6위 KIA와 반게임 차이로 5위에 머물러 있던 삼성 라이온즈가 5연승을 거두며 1주일 만에 2위로 급부상한 것을 보면 현재 상승세인 KIA도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한번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KIA는 28일 기준 13승 15패로 7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주와 비교해 한단계 떨어졌지만, 지난 25일 LG와의 시리즈에서 복귀한 김도영에 힘입어 리그 1위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IA가 29일부터 3연전을 치를 상대는 NC 다이노스다. NC는 지난달 22일 개막시리즈에서 KIA와 1승 1패를 주고받았으며 9승 16패로 9위에 머물러 있다. NC가 시즌 초부터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원정 경

2025 KBO리그 순위							(28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29	20	9	0	0.690	-
2	삼성	29	17	12	0	0.586	3
3	한화	30	17	13	0	0.567	3.5
4	롯데	30	16	13	1	0.552	4
5	KT	29	14	14	1	0.500	5.5
6	SSG	27	13	14	0	0.481	6
7	KIA	28	13	15	0	0.464	6.5
8	두산	28	12	16	0	0.429	7.5
9	NC	25	9	16	0	0.360	9
10	키움	31	11	20	0	0.355	10

기가 지속되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지 못한 데 있다. 박건우, 맷 데이비스 등 주축 타자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했고 홈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번 훈련을 위해 장소 설비를 해야 하다보니 특타 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NC는 지난달 29일 건물 외벽에 설치돼있던 ‘루버’가 추락해 관람객 3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 추모와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이달 초 경기가 취소됐고 홈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재개된 4일부터 고척·수원·사직·대전·잠실·대구를 거치며 원정으로만 총 18경기를 진행한 NC는 다음달 1일 창원NC파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KIA와의 3연전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를 위해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경기 일정과 장소를 맞바꿨다.

KIA가 혹서기인 8월에 원정 12연전을 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NC를 상대로 승수 쟁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 토종 선발 투수들의 분발이 필

요하다. 이번주 NC와의 3연전 첫 경기는 김도현이 나선다. 이어 황동하와 양현종이 차례로 선발 등판 예정 이다.

이번 시즌 KIA의 선발 투수 중 제임스 네일이 7경기서 2승, 아담 올러가 6경기 중 4승을 거뒀다. 초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윤영철은 3경기 만에 2군으로 강등됐고 김도현은 대부분의 경기를 켈리티스타트로 호투를 펼치고 있지만 승리는 없다. 황동하도 1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는 지난달 30일 한화전에서 불펜으로 투입돼 기록한 것으로 선발로 시즌 첫 투입됐던 24일 삼성전에서는 3.2이닝 7피안타(1피홈런) 4실점(4자책) 1사사구 3탈삼진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BO 역대 2번째 180승을 앞두고 있는 양현종도 시즌 초반 부진이 계속되면서 0승 3패 평균자책 6.75를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도 김도영이 복귀하자마자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KIA의 공격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5일 1군으로 복귀한 김도영은 LG와의 1차전에서 대타로 등장해 무사 만루 상황에서 안타로 2타점을 올렸고, 이를 만에 4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1삼진을 기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김도영은 원래도 리그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였었기에 가진 실력은 충분히 월등한 선수고 이번 부상을 계기로 근육 부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부상만 잘 이겨내고 넘어가면 더 좋은 선수가 될테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명타자로 내보내고 있고 (최)형우가 좌익수 수비를 한번 나가준다고 말했다. 선수들끼리 서로 배려해줘서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 출신’ 손현호, 역대 한국·대회 신기록 번쩍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81kg급 인상·용상·합계 3관왕

송정중·정광고·광주광역시청 출신 손현호(국군체육부대·사진)가제84회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에서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3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28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 81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205kg, 합계 355kg을 들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손현호는 인상 1차시기에서 150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2차시기와 3차시기에서 160kg 도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용상에선 1차시기 195kg을 성공시킨 뒤 2차시기205kg도 들어올려 한국기록(중전 204kg)을 갈아치우며 1위

에 올랐다. 3차시기에선 210kg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인상과 용상 기록을 합산한 합계에서도 355kg을 기록, 대회신기록(중전 337kg)을 세우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해 군 복무를 시작한 손현호는 오는 7월 제대하고 광주시청에 복귀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육중 송채연, ㉠주니어선수권 출전권 획득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 주니어 1위

‘한국 여자체조 유망주’ 송채연(광주체육중 3년·사진)이 올해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송채연은 지난 26~2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기계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개인종합 여자주니어부문 1위를 차지했다.

송채연은 여자대표선발전에서 도마(12.967점), 이단평행봉(10.867점), 안마(10.100점), 마루(11.633점) 등 4개 종목 합산결과 45.567점을 획득해 개인종합 전체 10위, 주니어부문(15세이하) 1위를 기록했다.

여자주니어부문 2위는 이세연



(42.366점·서울체중 2년), 3위는 이혜진(42.001점·서울체중 2)이 차지했다.

이로써 송채연은 오는 6월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아시아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내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송채연은 “1주일전 제80회전국종별체조대회가 있어서 이번선발전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으나 홍윤식 감독님과 선종열 지도자 선생님께서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아시아주니어선수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 펜싱, 회장배 전국남녀종별선수권서 우수 성적

금메달 2·동메달 6개 획득
전남도청 에베 단체전 우승

전남 펜싱이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28일 전라남도체육회와 전라남도펜싱협회에 따르면 전남 펜싱선수단이 지난 19~27일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6개를 수확했다.

김향은·박소형·김태희·박새롬으로 구성된 전남도청 여자 에베 펜싱팀은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충북도청을 45-35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박다은·손정민이 출전한 전남도청 여자 사브르 펜싱팀은 여자일반부 단체전 4강전에서 서울시청에 28-45로 져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지현은 여일반 사브르 개인전 준결승전에서 김지영(안산시청)에 13-15로 석패, 동메달을 추가했다.

해남군청 황태현은 남일반 에베 개인전



전남도청 펜싱팀. 왼쪽부터 김수민 코치, 박소형, 김향은, 박새롬, 김태희, 김지현, 손정민, 박다은 선수, 김용을 감독. 전남도체육회 제공

결승에서 이정함(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치열한 승부 끝에 12-11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해남군청 구영모는 남일반 에베 개인전 에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구영모·황태현·권오민·윤정원이 호흡을 맞춘 해남군청 남자 에베팀은 남일반 단체전 4강전에서 부산시청에 38-45로 져 3위를 차지했다.

최지예·김승주·이예지·김윤채가 출전한 전남체육고 여자 플러레팀은 여고부 단체전 4강전에서 성남여고에 38-45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공예진·강누리·김솔리·박승현이 출전한 전남기술과학고 여자 사브르팀은 여고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문영준 전남펜싱협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망주 육성과 선수 저변 확대에 힘써 전남 펜싱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 켈링, 2025 하이코어배 혼성4인조 우승

전라남도 켈링선수단이 2025하이코어배 코리아휠체어켈링리그 혼성4인조 우승을 차지했다.

28일 전남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켈링선수단은 지난 7~2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과 강릉켈링센터에서 휠체어켈링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이번 대회 리그 혼성4인조 결승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1세트 초반 실점을 뒤

집고 8세트까지 꾸준히 점수를 획득, 6-2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번 리그에는 전남도를 비롯해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서울시청, 인천상록수, 전북휠체어켈링 등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이번 리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과 직결되는 대회로,상위 4개팀에게는 국가대표 선발

전 진출 자격이 주어졌다.

전남 켈링선수단은 켈링 전용 경기장이 없어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해 전지훈련을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꾸준히 기량을 연마해 이번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남 선수단의 우승은 전략적 경기 운영과 탄탄한 팀워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되며, 장애인 켈링의 경쟁력 향상을 입증했다. 전남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